

# 만남

2022년 9월  
통권 21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2022년 8월 20일 하노버 공동체>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             |    |
|---------------------------|-------------|----|
| 특 쏘는 영성                   | -----       | 3  |
| 기도 맛들이기                   | -----       | 4  |
| 소공동체 모임 자료                | 버림과 따름----- | 5  |
| 영성의 숲                     | -----       | 8  |
| 영적 상담                     | -----       | 11 |
| 성경 속의 사람들                 | -----       | 13 |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 16 |
|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       | 17 |
| 공동체 소식                    | -----       | 18 |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       | 19 |
| 월 중 행사표                   | -----       | 20 |
|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br>월보 만남지 안내 | -----       | 21 |
| 미사안내                      | -----       | 22 |

## 《교황님의 9월 기도지향》

### ❖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형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법적으로 폐지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Schema<sup>2</sup>

### ✦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가? (홍성남 마태오 신부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선배 신앙인들은 믿음은 한 치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복음에 나오는 토마스 사도의 경우를 들곤 합니다. 물론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는 분란으로 인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심리적으로 하자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심리적 구조를 가진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토마스 사도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질책을 하신 것인가? 토마스 사도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상 불신감이 강해서 교정해 주시고자 야단을 치신 것이지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갖는 의심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교황께서는 “신앙인은 의심을 가지고 믿는 자와 의심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의 한계성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더 테레사 성녀도 당신의 일생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의 반복이었다”라고 고백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종교인은 “의심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이다”라고 말해서 의심에 시달리는 신자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의심이 의심 자체로 끝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란 물음을 의미하고 물음은 더 공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의심은 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 없이 믿기만 한다면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자아가 성장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구도자들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늘 주님께 물음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사회는 흐르는 물처럼 되어갑니다. 그러나 물음 없이 복종하고 맹목적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공동체는 고인물처럼 되어버려서 경직된 도덕관으로 인해 융통성 없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퇴행해 버리고 맙니다. 더욱이 그 개인은 내사(內事)라는 심리적 독성이 생겨서 평생을 심리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의심과 물음은 내적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는 것이니 믿음이 약하다고 의심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수난 중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당신을 버리시느냐고 부르짖으셨습니다.

### ♥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기도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님)

세탁물이 산더미인데 세탁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한동안 무척 성가셨습니다. 마침 창고를 정리하다가 큼지막한 구식 통돌이 세탁기를 발굴해서 설치했더니, 세상에! 시원시원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옥상에서 담요들을 널고 있자니, 제 입에서는 감사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저기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기도를 바치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요한 6,11). 갈 곳 없는 소녀들을 수녀님들께서 친딸처럼 양육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의 개원 기념 미사 때의 일입니다. 영성체 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막내가 ‘우리집에 살면서 감사할 거리 37가지’라는 묵상 글을 낭독했는데, 듣고 있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기도보다는 청원기도에 혈안이 되어 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듯합니다. 육의 눈도 크게 뜨지만, 영안(靈眼), 심안(心眼)을 크게 뜨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노년에 다다른 벨라멧다 성녀가, 수도자로서 자신의 일생을 총정리하며 감사기도를 바치셨는데, 진정한 의미의 감사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제게 발현하심에도 감사드리지만, 발현하지 않으심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억력이 나빠 아무리 노력해도 암기할 수 없었던 제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 수녀님이 저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 갖은 폭언과 차별, 굴욕의 방 처벌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 여자가 정녕 그 벨라멧다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저라는 것과 마치 희귀한 동물 대하듯 바라본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 눈앞에 나타나실 때도 감사드리지만, 나타나지 않으실 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현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나 축복에 감사합니다. 건강과 성공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기도는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다가올 때는, 주님의 수난에 깊이 참여하게 되었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깊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것뿐임에 감사해야겠습니다.

## 버림과 따름 (루카 14,25-33)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7장 “이 세상 덧없이”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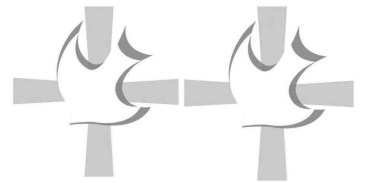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고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미만을 추구하려는 신앙인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십자가의 삶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연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기에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등에 맵시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85장 “103위 순교 성인”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순교자 성월 특집]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주신앙을 외치다”

### - 순교 선조들이 전한 말

한국교회 선조들은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 어떤 타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혹독한 고문의 현장에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단호하게 하느님 사람을 증거하며 신앙을 지키고 이를 현재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맞아 순교자들이 남긴 주요 신앙어록을 살펴본다.

#### 1, 성 김대건 안드레아

*“이런 군난 때는 성교회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 됨을 증거하고”*

용인 골배마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신학생으로 선발됐던 한국교회 첫 사제 성 김대건 신부는 1842년부터 1846년까지 21통의 편지를 썼다. 교우들에게 보낸 옥중 서한, 21번째 편지는 하느님 안배에 대한 깊은 믿음과 하느님께 대한 항구한 신뢰심을 묵상토록 한다.

“세상은 온갖 일이 막비주명이요, 막비주상주별이라, 고로 이런 군난도 역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하느님께서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다음 편지글은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구령사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 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공련하실 때를 기다리라.(중략)”

“주의 성의를 따라오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 편을 들어 이미 항복 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황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 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 2. 성 정하상 바오로

“목숨을 바친 순교로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본분”

성직자 영입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발전에 큰 공헌을 쌓았던 평신도 지도자 정하상 성인은 한국인 최초의 호교론서인 「상재상서」를 통해 천주교에 대해 밝혔다. 박해의 비합리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천주교를 변호하는 그의 글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천주의 신앙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임금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올바른 종교임을 밝히는 절절함이 배어난다.

“목숨을 바쳐 순교함으로써 성교가 진실된 가르침을 증명하여, 천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 본분으로 삼는 일이옵나이다. 죽음에 임하여 용감히 말해야 할 때에 한번 고개를 들고 크게 외쳐보지 못하고, 말없이 불쌍히 죽으면, 쌓이고 쌓인 회포를 백년 뒤에까지 스스로 밝힐 길이 없사오니, 엎디어 빌건대 밝히 굶어살피사, 도리의 참되고 거짓됨과 그르고 바름을 가리옵소서.”

## 3.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세상에 태어나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한 일”

정하상 성인의 부친으로 최초의 한글교리서 「주교요지」를 완성하고 평신도 단체 명도회 초대 회장이었던 복자 정약종은 ‘초기 한국교회 교부’로 일컬어진다. 그는 체포돼 혹독한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천주교 교리가 옳다는 것만 설명했다. 1801년 4월 8일 서소문 형장으로 끌려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우리를 비웃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일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흘린 눈물은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고, 당신들 기쁨과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참수형을 받는 순간에도 그는 “땅을 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보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칼을 받았다.



#### 4. 복자 윤유일 바오로

“예수를 모독하느니 천 번 만 번 죽을 각오”

복자 윤유오(야고보) 형이면서 복자 윤점혜(아가타), 윤운혜(루치아) 사촌오빠인 복자 윤유일(바오로)은 초기 교회 밀사이며 성직자 영입 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주문모 신부를 인도한 죄로 1795년 6월 28일 체포돼 그날로 옥중에서 참수돼 순교했다. 구베아 주교는 복자 최인길(마티아), 지황(사바)과 함께 순교한 윤유일의 굳건한 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재판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는지 질문하자 그들은 용감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독하라고 하자,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참된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느니 차라리 천 번 만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 질문

Q. 얼마 전 제가 아는 분이 여행사를 통해 유럽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다닌 곳이라곤 성당밖에 없다고 하면서 돈 들여서 갔다온 것이 아깝다, 그 나라들은 무슨 성당을 그렇게 많이 지은 것이냐, 교회에서 신자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신랄한 질문을 하는데 초보 신앙인인 저로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이런 분들에게 성당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런지요.

##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그분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유럽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란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을 다녀가서는 한국에 갔더니 보여주는 것이라곤 절간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요? 유럽은 가톨릭국가이고, 그러니 당연히 성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에 성당이 많은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가톨릭국가여서만은 아닙니다. 성당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성모님 메시지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성당을 지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인 프랑스 루르드, 벨기에 반뇌를 비롯한 여러 곳에 크고 작은 성당들이 세워지고, 동네 곳곳에 성모님 뜻을 기리기 위한 성당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성당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당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비롯한 여러 분과 영적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의 영성적인 면을 성장시키기 위한 터전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자리와 속된 자리,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은 지리산이나 계룡산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장소로 그곳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는 없겠지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성당이 그곳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성당은 마음의 휴식처입니다. 저도 얼마 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는 참으로 고달픈 여정입니다. 매일 짐을 싸고 풀어야 하고 버스와 비행기를 타야 하는 힘겨움뿐 아니라 낮선 음식, 낮선 잠자리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같이 순례를 하는 분들끼리 예민한 상태에서 작은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성당에 들어가면 마치 어머니

품에 들은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그래서 일부 영성심리학자들은 성당을 어머니 자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에는 마음에 영적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고요. 이처럼 성당은 인생길 순례자인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휴식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당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성당에서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부부로 첫 걸음을 걷는 혼인성사도 성당에서 합니다. 돌아가신 분 장례미사를 해주는 곳도 성당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마음의 통교를 하는 곳도 성당입니다.

이처럼 성당은 인생 전반의 모든 주제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성당을 자주 찾아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당들도 그렇지만 가톨릭국가 성당들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받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심리적 일치를 이루는 데 성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이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사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곳이란 의미로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혹 유럽 성당이 너무 화려하다, 신자들 돈을 착취해서 지은 것 아니냐, 성당이 화려한 것을 보면 성직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마치 화려한 성당이 무슨 범죄의 결과물인양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신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신자들 중에서 신심이 강한 분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성당 지을 헌금을 내놓습니다. 성당에 자기 이름으로 봉헌된 성물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신심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절에서 신도들에게 기왓장 한 장이라도 바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성당이 화려하면 성직자들 생활도 화려한 것이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비안네 신부님 경우를 들자면 성당은 주님을 모시는 곳이기에 화려하게 꾸미셨어도 당신 숙소는 마치 마굿간 같았다고 합니다. 유럽 수도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성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당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고, 인간 역사의 많은 것들이 기억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형제님께서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중요한 성당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 ♥ 성경 속의 사람들 - 엘리야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열왕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 예언자의 이야기가 그 흐름을 끊으며 등장합니다. 다윗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 솔로몬의 등극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나탄, 예로보암에게 임금의 자리를 약속한 아히야, 르하브암 임금을 저지한 스마야, 예로보암 임금 앞에서 베텔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무명의 예언자와 베텔의 나이든 예언자, 아합 임금 시대에 바알의 예언자들을 물리치고 호렙 산에서 하느님을 만난 엘리야, 아합 임금의 패전을 예언한 미카야, 엘리야의 제자로 여러 이적을 하고 특히 나아만의 병을 치유한 엘리사, 히즈키야 임금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저 유명한 이사야 등 여러 예언자가 활동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 것을 역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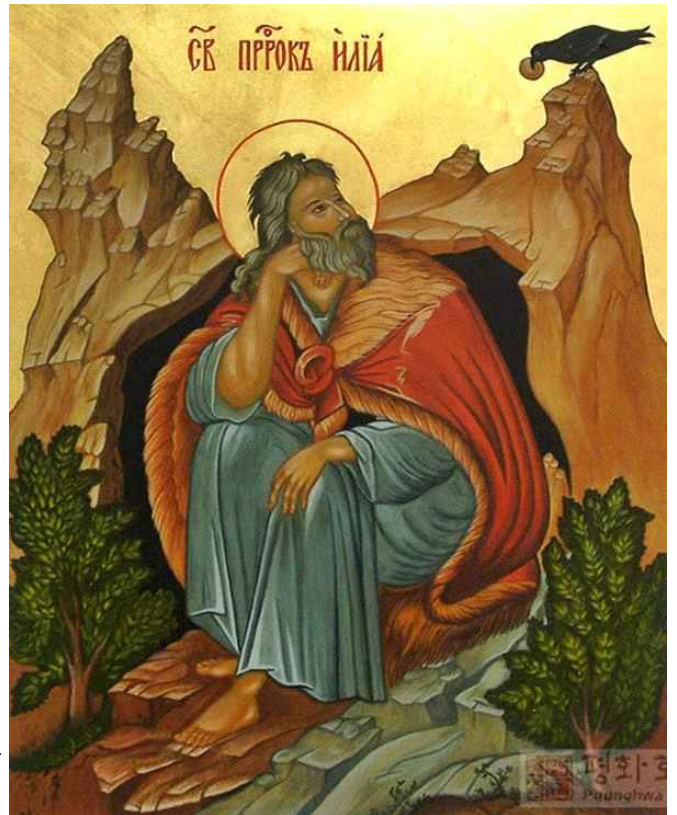
열왕기의 여러 예언자 중 가장 인상적인 예언자는 단연 엘리야일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은 주님(야훼)이시다.” 그의 이름에는 이미 주님께 대한 고백이 담겨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 이, 불타는 열정의 예언자, 그래서 마침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 그토록 갈망하던 천상의 삶으로 넘어간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도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엘리야,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첫 일성은 가뭄의 선포였습니다.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1열왕 17,1) 이 가뭄은 삼 년 동안 지속됩니다(18,1). 샘과 시내가 마르고 풀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18,5). 지독한 가뭄이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임금 아합의 죄 때문입니다. 아합은 단과 베텔에 세운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 우상 ‘바알’을 섬기고, 여신상 ‘아세라 목상’을 세워 주님의 분노를 샀습니다(16,31-33). 게다가 왕비 이세벨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18,4.13). 임금과 왕비의 이러한 행위는 백성마저 최악의 길로, 곧 주님을 버리고 예언자들을 해치게 만들었습니다(19,14). 결국 주님의 분노가 그들이 사는 땅 위에 가뭄으로 내렸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비와 폭풍우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을 찾는 이들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해갈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파괴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전자라면,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도록, 그리하여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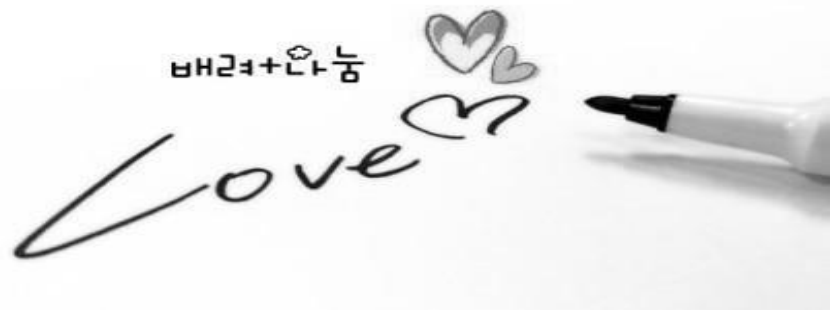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 곧장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크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에게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말라버리고 더 이상 거기서 지낼 수 없게 됩니다(17,1-7). 그러자 주님은 그를 시돈 지방의 사렙타라는 마을의 과부에게 가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가뭄으로 모든 것이 메말랐지만, 엘리야가 머무는 집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17,8-16). 엘리야가 머무는 개천이나 마을은 모두 이스라엘의 세력권 바깥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은 주님의 분노를 불러왔고, 이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까지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가 머무는 곳에는 빵과 고기가 있고, 밀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위협마저 거두어집니다. 사렙타의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두자,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목숨이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17,17-23). 이스라엘이, 임금부터 백성까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하고 있을 때, 시돈 - 이민족의 땅, 바알이라는 우상의 본고장 - 에서는 주님의 예언자가 공경을 받고 주님께 대한 신앙이 고백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천대 받던 여인, 바로 사렙타의 과부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의 입으로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17,24)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임금에게 고통 받는 백성들은 관심 밖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노새’를 위해 물을 찾아 나섭니다(18,5).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재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 언제나 사람들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채우게 될까요? 아, 언제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바라보게 될까요? 그런 기회가 올까요? 도대체 그 기회는 어디서 어떻게 얻어지나요?

이 상황을 바꾸어, 모든 고통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예언자를 다시 파견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18,1) 주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주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 유명한 카르멜 산 위에서의 대결(18,20-40)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 ❖ 9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1일  | 베레나   | 김 윤 하                   | 29일 | 가브리엘  | 최 서 로<br>박 준 영<br>남 재 민<br>박 연 심 |
| 3일  | 그레고리오 | 김 유 석<br>김 성 호          |     | 가브리엘라 | 이 현 후<br>최 희 로                   |
| 8일  | 마리아   | 권 오 상                   |     | 미카엘   | 박 지 현<br>황 영 선                   |
| 17일 | 로베르토  | 강 일 남<br>이 도 선          |     | 미카엘라  | 김 혜 정<br>김 민 현<br>김 영 호          |
| 21일 | 요나    | 이 정 훈<br>박 요 나<br>안 태 웅 |     | 라파엘   | 이 종 하<br>박 지 우                   |
|     |       |                         | 30일 | 소피아   | 심 재 은                            |

## ❖ 9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        |                  |     |               |                            |
|-----|--------|------------------|-----|---------------|----------------------------|
| 3일  | 세라피아   | 박경자(B)           | 21일 | 마태오           | 김명수(H)                     |
| 6일  | 베아타    | 신의경(H)           | 26일 | 빈첸시오<br>가브리엘라 | 추이슬(B)<br>신윤경(O)           |
| 12일 | 마리아    | 양봉자(B)<br>유복희(O) | 29일 | 미카엘           | 이종열(B)<br>김일환(H)<br>정근욱(H) |
| 20일 | 하상 바오로 | 정하상(O)           |     | 라파엘           | 임석순(H)                     |

## ❖ 9월 성가번호 ❖

| 9월  | 입 당 | 봉 헌 | 성 체 | 파 견 |
|-----|-----|-----|-----|-----|
| 4일  | 27  | 217 | 501 | 286 |
| 11일 | 21  | 510 | 188 | 285 |
| 18일 | 288 | 512 | 175 | 284 |
| 25일 | 46  | 216 | 167 | 283 |

## ❖ 9월 전례 봉사 ❖

| 9월  | 독 서                     | 제 병 봉 헌                 | 복 사 | 커피 봉사 |
|-----|-------------------------|-------------------------|-----|-------|
| 4일  | 허채열(크리스티안)<br>허영란(엘리사벳) | 이영원(베드로)<br>김정옥(크리스티나)  | *   | 청년    |
| 11일 | 이정훈(요나스)<br>전우연(아네스)    | 김치수(도미니코)<br>김영희(클라우디아) | *   | 1구역   |
| 18일 | 청년회                     | 청년회                     | *   | 2구역   |
| 25일 | 최영숙(데레사)<br>김매자(베로니카)   | 배성우(도미니코)<br>심은희(안 나)   | *   | 3구역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8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 자진헌납금(8월 21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강순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이정수, 김경미, 최순남, 손모니카, 현영애, 심동근, 김대현, 우동천, 정마리아

## ✿ 계좌 입금(8월 20일 기준)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중,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이영원, 정정숙, 이성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김동수, 백정선, 김원자, 배성우, Caroline Tunas, 강일남, 최종금, 최성자, 춘옥 Zerbock, 남궁춘배, Alice Eilinghof, 허채열, 김부남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8월 23일 자 통장 잔액은 25.163,82유로입니다.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9월 4일 주일 미사 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2. 9월 6일 화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3. 9월 10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는 9월 11일 주일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4. 9월 17일 토요일은 함부르크 대교구의 Nacht der Kirche  
(열린 교회의 날)입니다.
5. 9월 29일(목) 17시 30분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총무 이정훈(요나스)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지방공동체 소식

1. 9월 23일-25일 노르웨이 오슬로 공소를 방문합니다.

|                |                    |                     |      |            |            |
|----------------|--------------------|---------------------|------|------------|------------|
| 사 목 협 의 회      |                    |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 만남성당 | 회장         | 한말조(마리안나)  |
|                |                    |                     |      | 부회장        | 최영숙(데레사)   |
|                |                    |                     |      | 부회장        |            |
|                |                    |                     |      | 전례부장       | 문경영(아가다)   |
|                |                    |                     |      | 총무         | 이정훈(요나스)   |
| 주 일 학 교        |                    | 매월 셋째 일요일           | 만남성당 | 교감         | 최영자(파울라)   |
| 연 령 회          |                    | 매월 넷째 목요일<br>17시30분 | 만남성당 | 회장         | 정정숙(아나벨)   |
| 예 비 자 교 리      |                    | 통신교리 신청자            | 만남성당 | 복음화        | 회장 대리      |
| 레 지 오<br>마 리 애 | 믿음의 샘 Cu.          | 매월 첫째 화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김영희(클라우디아) |
|                | 자비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br>17시 30분   | 만남성당 | 단장         | 권지연(안드레아)  |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현영애(헬레나)   |
|                | 사랑의 모후 Pr.<br>(청년) | 매주 목요일<br>저녁미사 후    | 만남성당 | 단장         | 김한솔나(리드비나) |
| 구 역            |                    | 1구역                 | 반장   | 최종금(로 사)   |            |
|                |                    |                     | 총무   | 김매자(베로니카)  |            |
|                |                    | 2구역                 | 반장   | 이영희(체칠리아)  |            |
|                |                    |                     | 총무   | 허영란(엘리사벳)  |            |
|                |                    | 3구역                 | 반장   |            |            |
|                |                    |                     | 총무   |            |            |
|                |                    | 4구역                 | 반장   | 이순자(마리아)   |            |
|                |                    |                     | 총무   |            |            |
| 청년회            |                    |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 회장   | 신지혜(체칠리아)  |            |
|                |                    |                     | 부회장  | 현유건(레오나르도) |            |
| 요셉, 마리아회       |                    | 매월 둘째 수요일<br>오전미사 후 | 회장   | 조현영(로사리아)  |            |
|                |                    |                     | 총무   | 이정은(프란치스카) |            |
| 여성 봉사회         |                    |                     | 담당자  | 이정옥(크리스티나) |            |
|                |                    |                     |      | 김매자(베로니카)  |            |
|                |                    |                     |      | 권지연(안드레아)  |            |

## 9 월 행 사 표 (순교자 성월)

| 일  | 요일 | 전례일                                               | 단체행사                      | 비고            |
|----|----|---------------------------------------------------|---------------------------|---------------|
| 1  | 목  |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                           |               |
| 2  | 금  |                                                   |                           |               |
| 3  | 토  |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                               |                           | 브레멘           |
| 4  | 일  | 연중 제23주일                                          | 사목회                       |               |
| 5  | 월  |                                                   |                           |               |
| 6  | 화  |                                                   | 꾸리아                       |               |
| 7  | 수  |                                                   |                           |               |
| 8  | 목  |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                           |               |
| 9  | 금  |                                                   |                           |               |
| 10 | 토  |                                                   |                           | 한가위<br>오스나브뤼크 |
| 11 | 일  | 연중 제24주일                                          | 청년회 기도 모임                 |               |
| 12 | 월  |                                                   |                           |               |
| 13 | 화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                           |               |
| 14 | 수  | 성 십자가 현양 축일                                       |                           |               |
| 15 | 목  |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                           |               |
| 16 | 금  |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br>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                           |               |
| 17 | 토  |                                                   | 함부르크 대교구 Nacht der Kirche |               |
| 18 | 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br>성 정하상 바오로와<br>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                           | 하노버           |
| 19 | 월  |                                                   |                           |               |
| 20 | 화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br>성 정하상 바오로와<br>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               |
| 21 | 수  |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                           |               |
| 22 | 목  |                                                   | 연령회 월례회                   |               |
| 23 | 금  |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                           | 오슬로           |
| 24 | 토  |                                                   |                           |               |
| 25 | 일  | 연중 제26주일<br>(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               |
| 26 | 월  |                                                   |                           |               |
| 27 | 화  |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                           |               |
| 28 | 수  |                                                   |                           |               |
| 29 | 목  |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br>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                           |               |
| 30 | 금  |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                           |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 Jaehyuk Andreas Lee )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 미 사 안 내 ❖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 지방 공동체



####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